

어린 시절의 네버랜드

전시회 <어린 시절의 네버랜드>는 화가 나탈리아 빠삐비치의 딸을 위해 기획된 것입니다.

20여개의 작품들, 초상화와 정물화는 분주한 일상생활과 단절하고 잔잔한 낭만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 전시회의 명칭은 갑작스럽게 지어진 것이 아닙니다.

전시는 러시아 말 그대로 직설의미 '키셀의 해변가'란 옛날이야기 혹은 선한것으로써 어렸을 적으로 우리를 회상시키는 단어입니다.

아이들이 태어나고 우리들은 그러한 많은 것들을 기억하게 되며 다시 한번 느끼고 감정적으로 이 아름다운 세계를 다시 살아갑니다. 마치 예술가 처럼 말입니다.

각 회화작품들은 그러한 모든 것이 시작되는 처음부터의 상태를 이야기하려 시도합니다.

이 여류화가에게 자신이 존재한다는 느낌을 현실로부터 전달받을 때, 이것은 일순간에 일어나는 단편조각이며 시각적이고 감정적이게 살아온 날들 그리고 그곳에서 인생의 이해와 정확가 그러한 인상들의 자극으로 흘러 지나갑니다. 나탈리아 빠삐비치에게는 이 전시가 창조자처럼 그리고 스승처럼 많은 세월을 거친 작품들의 결과가 되었습니다. 네개의 대형 캔버스는 관람객들의 시각을 유치하며 온 전시회에 화사함을 부여합니다. 색의 풍부함, 조화로운 색으로부터 형성된 질은 형상, 풍경의 광활함은 작품의 기술에 투영되며 이 화가의 내면에 전적으로 통찰하는 것들은 물감이 되어 표현되어 있습니다.

친근하며 개인적인 감정은 동기로 인물로 시각들은 영감과 마음이 조건적인 기호와 결합하는 작가의 본질적인 입지입니다. 물론 자신의 색의 의미는 선적 리듬과 함께 캔버스에 특별한 시간의 리듬과 특별한 내면의 공간을 창조하는 의미의 완만하고 감정적인 에너지입니다.

자신의 가치있는 회화의 조형미술을 통해 그녀의 생각들을 체현합니다. 색채, 기교, 공간 그리고 전통적 회화의 가치 그리고 질 들은 다시한번 화가에 의해 사색하게 되어 집니다.

이것과 동시에 풍부한 색감은 색채파의 음향과 그것 자체의 자연스런 자기관찰적 회화의 표면의 그밖의 질들과 떼어놓을 수 없는 시적인 메타포 연상된 것들의 놀이입니다.

그녀의 작품에서 보여지는 단순함은 결코 가벼워 보이지 않습니다. 표면에 대한 집중은 깊숙한 공간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연상을 더해주는 깊은 의미를 줍니다. 공간 그 자체는 자수를 놓은 듯한 리듬을 통해 정렬시켜 놓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저 긍정적으로만 보이기 위한 과거의 인상화나 전통적 리얼리즘의 환상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항상 기호적인 상징이 존재합니다. 풍경화의 환경들의 조건 속에서 제약적이며 간결한 초상화의 형상들이 인식가능하며 우리를 둘러싼 현실을 관찰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부터 일부로 멀리합니다.

인생을 미로서 관통하는 매력적인 삶들의 매력과 그것의 집중은 이 화가에게 자신만의 아름다움 그리고 형상의 내추럴한 힘을 창조하게 합니다. 나탈리아 빠삐비치의 작품에는 그녀의 작품형성의 여러 단계에서 길고 혁신적인 역동성이 공존합니다. 여러 색으로 칠해진 캔버스는 컴포지션의 추상적임을 보여주고 임프레션한 풍경화적 해법으로 해석할 수 있는 전통적 리얼리즘입니다.

이러한 작업에서 초상화의 여러 변화가 보여 집니다.

간결함의 극치를 보여주지만 매우 뚜렷한 입체감을 보여주는 인물의 스케치는 대담한 인상주의라 할 수 있습니다.

그녀의 인물화에는 서정적이지만 로맨틱적 동요로부터 나오고 그러한 이동은 내추럴하게 이루어 집니다. 그리고 거대한 자연 풍경화는 특별한 기법으로 - 즉 내부에서 나오는 날카로움과 분명한 색조 하지만 그것들로부터 매끄러운 도식으로 그리고 인물의 특징이 분명하게 보이는 간결한 기호로 집중시키는 추상적 묘사로 작가는 표현합니다.

우리는 나탈리아 빠삐비치의 창작에서 그녀만의 흥미로운 발상들을 관찰하도록 합니다. 게다가 장르를 따르면서도 그리고 장르를 다시 풍경화와 인물화에 제한적으로 적용하여 해결합니다. 모든 것들이 가치가 있고 진리적인 예전의 정물화로부터 화가는 인식된 객체들은 보존되면서 기하학적 입체를 가진 밝은 색의 입체적 구조로 도달합니다. 크기, 기법, 사실에 가까운 물체들의 색감들, 그리고 그들이 언젠가 있었던 삼차원 공간 전적으로 그것들은 추상적 기법의 색 그리고 작품 공간은 입체적으로 형상화 됩니다.

아가씨의 인물화 딸의 인물화 그리고 정물화들은 자신만의 풍경과 객체의 공간으로 포섭합니다. 그 공간은 흐릿함없이 선명하고 분명하며 확실하게 그림의 이차원 평면에 형상화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특별한 광택이 없는 기법은 캔버스 안에 상상력에 잠기게 하는 조건들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여러가지로 밝게 빛나는 구조화된 붓기법은 대담하게 글을 쓰는 것 형식으로 구현되고 여기서 얻어진 미는 모든 캔버스에게 소리가 되어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녀의 확고한 사고의 법칙성은 기하학적 풍경화와 정물화의 형태로 구현됩니다. 기법의 여러가지들은 특별한 리듬과 입체적인 소리는 캔버스의 구성으로 들어갑니다.

구체적인 실물에 벗어나 초기의 모티브로부터 떨어져 이차적 작업인 판타지한 추상적인 방법으로 즉작가의 작품의 생생한 자연에서의 작업중의 신선하고 확신에 찬 영감 창조된 것들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들의 기본은 관찰과 영감 그리고 다른것으로부터 기호와 형태로 재탄생하고 그것들은 지형적 구체적과 일상적인 것으로부터 화가의 캔버스를 해방시킵니다.

멜랑콜리하며 희망적인 그리고 자유와 판타지의 비상으로 가득채워진 그리고 그러한 화가에게서부터 나오는 영감의 자석과도 같은 매력으로 빛과 색을 그리고 선을 극복한 그녀만의 광야 그 넓은 공간 그리고 느낌. 특히 기쁨에찬 그녀의 인생은 다른 현대 화가들과 나탈리아 빠삐비치의 작품들을 구별합니다. 그녀로 부터 주어진 캔버스에서 그녀의 강력한 감정의 충동 그리고 선과 색 물감의 도움으로 산림의 환경은 작가의 예술적 장인으로 완성된 공간으로 변화되고 관람객들을 격양시키고 환상과 희망의 세계로 이끌어 갑니다.

그녀의 작품에서 나오는 힘의 팽창은 우리에게 그리고 관람자에게 작가의 힘과 재능 기지 창작의 지향 그리고 가능성에 대해 평가하게 될 것입니다.

알로나 다쨌코

예술평론가 러시아 연방 예술가 동맹 일원

연해주 화가 전시회장